

친환경 ‘봉침요법’ 농가서 인기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페니실린 1200배이상 효과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봉침(蜂針)을 이용해 친환경 육류를 생산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어 축산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남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돌산읍 둔전리 정철호(55)씨의 한우 농장에서 봉침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 김희열 축산전문지도사가 정씨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어미소와 송아지에 봉침을 놓는 기술을 농민들에게 선보였다.

김희열 지도사는 꿀벌을 한 마리씩 잡아 벌의 등쪽을 엄지와 인지로 잡은 뒤 편셋으로 벌침을 추출해 태어난지 3일된 송아지의 허리(백회), 꼬리(교소) 부분과 어미소의 허리 부위에 각각 침을 놓았다.

침을 맞은 송아지와 소는 다소 놀란 기색은 보였지만 크게 발버둥치지는 않았다.

봉독은 꿀벌의 복부끝 독낭에 저장돼 있으며 봉침과 연결돼 자극을 받으면 분비되는 동물성 천연생리 활성물질로 액에는 페니실린 1200배이상의 살균작용과 더불어 소염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침을 맞으면 호흡기 질환과 설사 예방에, 어미소는 산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도사는 “간단한 봉독 취급법만 알면 부작용없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 벌을 키우면 양봉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06. 05. 23. / 수의축산신문 -